

성인학습자의 e-러닝 학업지속 장애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서울소재 H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정용균¹, 김종렬^{2,3*}

¹국립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2,3}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Factors to Disturb Adult Learner's e-Learning Persistence: A Case Study of H-Cyber University in Seoul Korea

Yongkyun Chung¹, Joong-Ryul Kim^{2,3*}

¹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²President,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Professor

³Economics Division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 약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대학에서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성인학습자들에 대한 교육은 평생교육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 재학 성인학습자 사례분석결과, 경제적 부담, 학습시간 부족,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 고립감, 상호작용 미비 등이 학업지속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제도는 상당히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이버대학 재학생이 느끼는 고립감과 온라인상의 상호작용 부족문제는 오프라인특강 활성화로 완화가능하며, 성인학습자를 위한 컴퓨터사전 교육이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외국의 온라인교육 중도탈락 연구들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경제적 부담과 학습시간부족이 우리 경우에는 중요하게 나타난 점이다.

주제어 : e-러닝, 성인학습자, 사이버대학, 경제적 부담, 상호작용, 학업지속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factors to disturb the e-Learning persistence of adult learners based on a case study of Cyber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Seoul Korea. Main findings of our research show that economic burden, shortage of studying hours, digital literacy problem, perceived isolation, inefficient interaction between lecturer and student, and support of family are primary factors to influence the persistence of online education in a Cyber university. From our case study, we recommend to improve the scholarship system, and supplement the offline special lectures at weekends in order to alleviate perceived isolation. A novelty of this paper is that economic burden is highlighted to influence the persistence of adult learners.

Key Words : e-Learning, adult learner, Cyber university, Persistence, Interaction

1. 서론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수명연장에 따른

복지문제가 현안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100세 이상 인구가 7만 명을 넘어서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1], 우리나라 미래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전

*이 연구는 2018학년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This work was supported by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search Fund Of 2018.)

*Corresponding Author : Joong-Ryul Kim(jrkim@cufs.ac.kr)

Received November 2, 2018

Accepted December 20, 2018

Revised December 5, 2018

Published December 28, 2018

망되고 있다. 수명연장은 불가피하게 직업의 연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학 1차 교육에서 획득한 최초의 전문지식만 가지고는 수명이 연장된 중년이후의 삶을 감당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년이후에도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평생교육을 행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인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교육기관에 등록하는 성인학습자들은 상당수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사람들이다 [2]. 이들을 위한 사이버대학 원격교육은 사실상 매우 잠재력이 풍부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e-러닝 기법을 활용하면, 교통비등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상당량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시간 역시 절약할 수 있어서 [3], 직업과 학습이 병행가능하다는 면에서 잠재력이 크다고 할 것이다.

성인학습자들은 배움 자체를 추구하는 학습동기를 가지거나, 직업상 발전을 목표로 입학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하여 e-러닝(e-Learning)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4].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e-러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즉 e-러닝 학습은 전통적인 대학 교실에서 행해지는 오프라인 학습에 비하여 중도탈락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Levy [5] 와 Parker [6] 에 의하면, 보통 대학 중도탈락률이 10-20퍼센트 인데 비하여 e-러닝 수업의 탈락률은 25-40퍼센트에 달한다고 한다. Dutton, Dutton, & Perry [7] 는 오프라인 수업 학습자들의 90.3퍼센트가 과정을 이수하지만, 온라인 학습의 경우는 72.2퍼센트의 학습자들만 과정을 이수한다고 보고하고 있고, Willging & Johnson [8] 은 미국 일리노이대학 온라인석사과정의 중도탈락률이 34퍼센트임을 보고하고 있다. 박지혜와 최희준 [9] 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e-러닝 연구에 의하면 국내 사이버대학 역시 중도탈락률이 높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Tinto 중도탈락모형 [10] 이 정립된 이후, Levy [5] 와 Parker [6] 등은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 변인들을 연구해왔으나, 외국문헌에서 발견된 중도탈락 변인들과 한국 성인학습자들의 학업지속 및 중도탈락 변인들이 동일하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하면 서양사회와 한국의 사회구조 및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첫째, 둘째, 등록금 등 경제적 차원의 장애요인이다. 대부분의 성인학습자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업을 지속하

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기혼자인 경우 자녀양육비 및 자녀 교육비 부담 역시 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11]. 둘째, 성인학습자들이 청년학습자들과 학업을 같이할 때 고립감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12]. 특히 한국과 같이 연령이 관계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에서 전통적 학습자와 비전통적 학습자가 같이 공부할 때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셋째, 성인학습자들이, 전통적인 학습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인터넷과 컴퓨터 활용능력 등 e-러닝 수업을 소화할 만한 정도의 준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 본 연구는 한국 고유의 학업지속 장애요인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e-러닝 교육의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셋째, 연구결과의 함축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선행연구

사이버대학 등 이러닝을 활용하고 있는 학습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규명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종연과 이은진 [14] 은 대학 e-러닝에서 시스템 품질이 학습자 만족도에 주는 영향력을 분석한 바 있으며, 이종만 [15] 역시 e-러닝에서 학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 바 있다. 최부기와 전주성 [16] 은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수업만족도와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윤동기 [17] 는 사이버교육(이러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이처럼 e-러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상당수 e-러닝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탐구하여 왔다. 권진희 [18] 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우도 2005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원격대학의 정원대비 등록률은 57.8퍼센트로 전체정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에 있다. 이처럼 성인학습자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수업을 시작하였으나 상당수가 중도에서 탈락하고 있다. 따라서 e-러닝의 장애요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보인다. 온라인교육 학습자의 경우 중도탈락하고 학업의 지속이 실패하는가에 대해서는 대략 다섯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2.1 경제적 부담

상당수 연구의 경우,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은 경제적 부담의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다. 장상필과 이영민 [11]의 연구에 의하면 등록금부담을 e-러닝 기반 평생학습 장애요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중도탈락 요인을 연구한 최선과 김광재 [19]도 높은 수업료를 중도탈락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하고 있다. Parker [6]는 재정적 지원 여부가 원격교육 학습자의 중도탈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권혜진 [20]은 사이버대학 등록금이 오프라인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등록금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관점에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연구결과에 더불어 e-러닝 강좌를 듣는 성인학습자로 분석대상 범위를 좁혀도 동일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Willging & Johnson [8]은 특히 성인학습자인 경우에는 온라인 강좌의 중도탈락 원인 중의 한 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박소연 [21]의 성인의 대학평생교육 요구분석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3.8퍼센트(105명)가 등록금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최운설 [22] 역시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참여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 저해요인 중의 하나로 경제적 부담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사이버대학 등록금이 오프라인 대학에 비하여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학습자들의 경우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차로 대학을 다니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대학 등록금을 단순히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해서는 곤란한 면이 있다. 성인학습자들은 대다수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더구나 성인학습자의 상당수는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들은 자녀 교육비 부담으로 자신의 노후자금을 털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학습자가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하여 생활비 일부를 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하겠다.

2.2 학습시간부족

외국의 문헌에서는 e-러닝 수강생의 중도탈락 요인으로 학습시간 부족을 주요 변인으로 포함시킨 경우는 많지 않다. 이처럼 학습시간 부족이 해외 e-러닝 문헌에서 중요 요인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은 e-러닝 자체가 오프라인 교육에 비하여 시간을 절약해준다는 명백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아닌가한다. 그러나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는 학습시간 부족이 성인학습자의 중도탈락 요인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박순진과 김성완 [23]의 성인여자대상 전자교육 학습자 중도탈락 요인 분석에 의하면 학습가능시간 부족을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장상필과 이영민 [11]의 연구는 e-러닝 기반 평생학습 장애요인의 하나로 학습시간 부족을 보고 있다. 최운설 [22]과 박소연 [21]의 연구에서도 학습시간 부족이 성인학습자 평생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김은화의 2인 [24]의 초등학교 교사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 활용실태 연구에 의하면 사이버학습 운영 시 업무중가에 따른 부담감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성인학습자의 경우, 상당수가 직장에서 일을 함과 동시에, 수업을 듣고 있으며 결혼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대다수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과외로 수업을 듣고 있다. 결국 풀타임 학생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학습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제가 과중하게 되면 더더욱 학습시간은 부족하게 된다. 결국 성인학습자가 이를 견디어내지 못할 경우,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은 약해지고 중도 탈락할 위험은 커지게 된다.

2.3 상호작용 부족

상당수 연구들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중도탈락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학업지속 장애요인으로는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일찍이 Tinto [10]는 학습자들이 대학에서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질이 학업지속을 예측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Carr [25]는 사이버교육에서 중도탈락의 요인 중의 하나로 교수와의 개인적 접촉이 부족한 것을 제시한 바 있다. Bocchi, Eastman, & Swift [26]와 Morgan & Tam [27] 역시 상호작용 부족을 중도탈락 요인으로 보았다. 김현아·김현진 [28]은 교수자와 적극적 상호작용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일경·이성혜 [29]의 재직학습자의 원격교육과정 학습 연구에 의하면, 교수자, 튜터,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의 적극성 정도가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교수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이 학업지속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은 미흡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정식 [30]의 대학 e-러닝 실태조사결과, 응답자의 85퍼센트가 교수자와 학습자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단지 6퍼센트만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손경아와 우영희 [31]의 원격교육기관 학습관리 시스템 연구에 의하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복잡다단한 기능보다는 필요한 기능 위주로 상호작용기능이 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정연숙과 성지훈 [2]에 의하면 5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은 특히 다른 연령대 학습자 보다 학습자-교수자 간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선호하지 않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온라인 상호작용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4 인지된 고립감

사이버대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대학에 등록하였으나, 더 이상 수강을 지속하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인지된 고립감을 들 수 있다. Rovai [32]는 원격교육에서의 중도포기나 학업지속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이 일반 오프라인 교육과는 달리 학습자의 인간관계도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인지된 고립감(perceived isolation)이란 동료와 친구들 간 사회적 관계의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내적 감정적 상태로 정의된다 이를 사이버대학 학생들에게 적용하면, 고립감은 학습자가 사이버대학교의 온라인강좌를 수강하면서 느끼는 동료와 교수자 등과 학습상호작용 부재로 인한 외로움으로 정의할 수 있다.(주영주의 3인 [33]). 백영림·송병남 [12]에 의하면 성인학습자들은 대학에 재입학하였을 때 전통적 학습자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설령 전통적 학습자들과 관계를 형성하더라도 행동이나 태도 언행 등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ovai [34]는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소속감(sense of community)가 강한 경우, 고립감을 적게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주영주 외 3인 [33]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 인지된 고립감이 학습지속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주영주 외 2인 [35]에 의하면 사이버대학생의 고립감은 콘텐츠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학습 환경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각각의

학습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교수자와 원격으로 접속한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 지리적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둘째, 학습자-학습자 관계에서도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하나의 교실에서 같은 장소에서 심리적으로 교감하면서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e-러닝 환경에서는 학습자-학습자도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학습자도 서로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학습자는 컴퓨터와 대면하고 있을 뿐이다. 정규 오프라인 학습과는 달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학습해야 하므로, 학습자는 오프라인 학습과는 달리, 다른 동료학생들과 고립되기 쉽다.

2.5 디지털리터러시

21세기에 들어서 기술혁신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매우 신속해서 모바일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36]. 상당수 연구의 경우, 청년층은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에 익숙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규교육을 받았을 때는 아직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40대 이후 세대는 성년이 된 이후에 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접했다. 50대의 경우는 인터넷이 대학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에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컴퓨터 활용능력을 독학으로 배웠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청년 소년 세대에 비해서는 디지털리터러시가 약할 수밖에 없다. Dupin-Bryant [37]는 인터넷 검색, 파일관리, 애플리케이션 운용과 같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필요한 컴퓨터 능력 부족은 중도탈락의 중요 원인으로 보았다. 심미자 [13]의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연구에 의하면 성인학습자들은 대체로 인터넷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사이버대학이란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컴퓨터 활용능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라 하겠다 [37]. 그러나 시험과 리포트, 질의, 응답 등 대부분의 학습활동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연숙과 성지훈 [2]의 연구에서도 5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들은 특히 다른 연령대 학습자 보다 학습자-교수자 간의 온라인 상호작용을 선호하지 않은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어서, 이는 고연령층 성인학습자들의 컴퓨터 활용능력이 미흡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성인학습자의 경우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2.6 가족의 지지

여러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경우, 학업을 지속하게 된 요인으로 가족의 지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족의 지지가 약한 경우, 학업의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 Willging & Johnson [8] 은 중도포기자들이 온라인 학습을 그만두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족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최길순 [38] 의 전문대학생 중도탈락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경제력이 낮을수록 전문대학생의 중도탈락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 등 가족의 지원은 학업지속이나 중도탈락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영림과 송병남 [12] 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성인학습자 대학생활의 갈등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지혜와 최희준 [9] 역시 이러닝 성인학습자의 중도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의 지원을 거론하고 있다. Park & Choi [39] 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지원 여부가 학업 중도포기자와 과정이수자간에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족의 지지가 성인학습자의 학업 지속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가족은 정신적으로 지원을 할 뿐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질 지원을 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3.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계량분석에 대한 대안으로 사례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사례연구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이천년 대 들어서 정책학(최병선 [40]), 행정학(윤건수 [41]), 관광학(심원섭 [42])에서 사례분석 방법론의 장단점을 논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교육학에서는 Yin [43] 에서 보듯이 오래전부터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최근 성인학습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실증분석 연구가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질적 연구방법에 의한 성인학습자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영식 [44] 은 성인학습자의 학습동기에 대한 연구

동향을 개관하면서 질적 연구 방법의 필요성을 개진한 바 있다.

3.1 사례연구: 이론

사회과학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계량적 연구는 개념을 조작화하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사례연구는 자료를 통하여 연구 대상이 갖고 있는 다면적 모습을 가감 없이 묘사함으로써, 상황을 풍부하게 이해하려고 한다 [42]. 달리 말하면, 사례연구란 어떤 현상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답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독특한 특성을 가진 소수 실제 현상에 대해 심층적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과학이 실험을 통해서 이론의 검증과 발전을 시도하듯이 사회과학에서는 관찰이 이론의 검증과 발전의 재료이고 사례연구는 이 재료의 한 종류이다 [42]. King, Keohane, & Verba [45] 는 계량적 연구방법론은 연구 설계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대신에 데이터의 문제들을 통계적으로 수정하여 유효한 추론을 얻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병선 [40] 은 과학철학의 대가인 Thomas Kuhn 교수의 이론을 원용하여, 과학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특이사항들이 축적됨으로써 과학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계량적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이사항은 이상치(outlier)로 간주하여 배제해 버리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학에서 생산함수 추정의 경우 잔차(residual)에 기술 혁신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생산함수 모형에서는 기술 혁신을 측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례연구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기존 이론을 검증하거나 반증방법으로서 강력하다. 보통 사회과학에서는 이론의 검증을 위해서는 계량기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사례연구도 검증수단으로 유용하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계량기법보다도 우월한 측면이 있다 [40]. 왜냐하면 계량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연구모형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경제모형에서는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가정하거나 인간은 합리적 행위를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가정은 제한적으로 유효한 것이 현실이다. 사례연구의 두 번째 강점은 반증과정에서 새로운 이론과 가설의 형성 계기와 가능성을 풍부하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즉 사례연구는 기존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기존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의 발견을 돕게 된다. 이러한 사례연구 방법을 탐지적 사례연구(heuristic case study)라고 부른다 [40]. 그러나 최고의 사회과학 연구들은 계량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이 주류이다 [45]. 본 연구는 그러한 정신을 살려서 질적 연구방법론을 주로 활용하되, 사례의 개수를 늘려서 양적인 연구방법의 측면도 보강하고자 한다.

3.2 사례연구: 적용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속 요인 및 중도탈락에 연구하기 위해서 종래에는 설문조사에 의한 가설 검증 방법론이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문헌연구 및 제도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e-러닝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속의 장애요인 및 지속적인 중도탈락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적인 내용분석이 필요하다. 성인학습자의 학업지속 장애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적 분석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성인학습자의 중도탈락에 대한 정형화된 실증적 인과모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어떠한 변인이 e-러닝 성인학습자의 학업에 방해가 되는지 중도탈락의 원인인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일반 대학생의 경우 중도탈락의 원인으로는 자기 결정 부족과 부모와 같은 중요 인적자원에 의존한 대학선택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 중에는 이미 대학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많고, 이들은 자기 주도형 학습자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변수가 성인학습자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인지 밝혀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King, Keohane, & Verba [45] 와 Creswell [46] 의 견해에 따라서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심층면접 기법과 설문조사기법을 병용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주로 통계분석을 활용한 양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양적 연구는 세세한 요인에 대한 분석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연구 설계는 일차적으로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의서를 작성한다. 둘째, 관련 방법론 문헌 및 전문가 의견들을 참조하여 질의서를 수정한다. 셋째, 연구윤리의 준수를 위하여, 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면담과정에서 모든 면담자들로 부터 정보제공 및 이용 동

의서를 받았다. 넷째, 연구자들은 사이버대학에 출장을 가서 면담을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섯째, 24명의 면담에서 얻어진 질의서 내용을 타이핑하여 집적한다. 여섯째, 패턴을 발견하기 위하여 분석에 들어간다. 일곱째, 논문작성에 들어간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H사이버대학에 등록된 총 24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한다. 본 연구자가 면접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은 30대 40대 50대의 세 부류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H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과 연락하여 면담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자들이 직접 H사이버대학에 방문하여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개개 면담대상자에 대한 면담은 3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면담자에게는 면담 전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질문지가 주어졌다. 사례분석은 7-8명의 면접자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나 본 연구는 24명을 면접하였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면접이 가져올 수 있는 편기현상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들은 면담을 위해 객관식 질문과 주관식 질문을 미리 준비하였다. 또한 연락처를 받아서, 의심스럽거나 추가 질문사항에 대비하였다.

질의서 내용은 양적인 질문을 묻는 문항과 질적인 질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양적인 질문은 응답자가 예, 보통, 아니오 세 가지 응답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질적인 질문은 각 문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한 바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학업지속 장애요인을 묻는 문항은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경제적 이유에 대한 문항의 경우, 양적인 질문 문항은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비싼 편이다”. 질적인 질문은 “귀하가 생각하기에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말씀해주세요”이다. 둘째, 학습시간 부족에 대한 문항의 경우 양적인 질문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다보니 공부시간 내기가 어렵다”. 질적인 질문은 “학습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이다. 셋째, 정보기술능력 부족에 대한 문항의 경우, 질적인 질문은 “컴퓨터 기거나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질적인 질문은 “스마트기기가 너무 발전해서 따라가기 어렵습니까?”이다. 넷째, 인지도 고립감에 대한 문항의 경우, 질적인 질문은 “교수님을 직접 보고 강의 듣는 것이 아니어서 외롭다”와 “학교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외롭다”의 두 가지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질적인 질문은 “사이버대학이어서 동급생들을 만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다섯째, 가족의 지원

에 대한 문항의 경우, 양적인 질문은 “가족들은 내가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질적인 질문은 사이버대학에 다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여섯째, 사회의 인식에 대한 문항의 경우, 양적인 질문은 “사이버대학 다니는 것이 취업에 대하여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질적인 질문은 “기대수준이 미흡한 이유를 말씀 하세요”이다. 원래 질문 문항은 취업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이었으나 대부분의 응답이 사회 인식에 대하여 응답하고 있어서 최종분석에서는 사회의 인식에 대한 문항으로 변경하였다.

4. 사례분석

4.1 면담자들의 특성

면접자들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30대가 9명, 40대가 5명, 50대가 6명, 60대가 1명, 20대가 3명이다. 20대 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학선택 경로를 보면 대부분은 자기 스스로 사이버대학을 선택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성인학습자들은 자기주도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안동휘 [47] 에 의하면, 자기주도형 학습을 하는 학습자들은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24명의 면담자 중에서 여성이 17명 남성이 7명이며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24명 중 7명을 제외한 17명이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학업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과거에 직장을 다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이버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다른 대학에 다닌 적이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서는 24명 중 5명을 제외한 19명이 이미 대학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제2인생을 준비하거나, 현재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인다.

4.2 분석결과

4.2.1 경제적 부담

총 24명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 24명의 면담자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2명이 등록금 부담이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3퍼센트가 등록금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했던 박소연 [21] 의 설문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특히 사이버대학 재학생 중 직업이 없는 경우는 그러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직장 없는 가정주부이거나 직장을 퇴직한 경우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Table 1. Interviewers' Characteristics

	Age	Decision Maker	Gender	University Graduate	Current Job
1	30-39	Myself	female	0	0
2	40-49	Colleague	female	0	X
3	20-29	Friend	female	0	X
4	50-59	Friend	female	0	0
5	50-59	Myself	female	0	0
6	30-39	Parent	female	0	0
7	50-59	Myself	female	X	X
8	40-49	Friend	male	0	X
9	50-59	Myself	female	0	X
10	60-69	Myself	male	X	0
11	30-39	Myself	female	0	0
12	40-49	Myself	female	0	0
13	50-59	Myself	female	0	0
14	30-39	Myself	female	0	0
15	40-49	Myself	male	0	0
16	20-29	Myself	male	X	0
17	20-29	Colleague	female	0	0
18	40-49	Friend	female	0	X
19	30-39	Myself	male	0	0
20	50-59	Myself	male	X	0
21	30-39	Myself	female	0	0
22	30-39	Myself	male	0	0
23	30-39	Parent	female	0	0
24	30-39	Myself	female	0	X

Note: 0 denotes yes and X indicates no.

“가정주부니까 등록금이 부담이 된다. 계절학기 들을 때 힘들었다. 자녀교육에도 돈이 든다. 선택함에 망설임이 있다.”(면담자 2). “두 아이를 육아하면서 등록금 내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담자 14).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서 약간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그만둔 뒤, 생각보다 등록금이 비싸게 느껴집니다. 과목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의 증가합니다.”(면담자 18).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다른 집단은 다른 온라인교육기관의 등록금과 비교해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고 있다. “방송통신대학에 비하여 등록금이 비싸다. 세 과목 듣는데 24만원이다. 등록금이 좀 저렴하면 좋겠다.”(면담자 5). “다른 사이버대학에 비교하여 볼 때 다소 비싸다고 생각됩니다.”(면담자 3). “교육 콘텐츠는 좋지만 다른 사이버대학과 비교할 때 등록금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 한다.”(면담자 8). “다른 사이버대학 보다는 비싸다 그러나 스페인어과 경우는 다른 대학에 없으므로 등록금을 낼 용의가 있다.”(면담자 23).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인정한 반면 장학금제도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Sutton & Nora [48]의 연구에 의하면 장학금과 학비대출이 학업 지속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학금제도를 많이 확충하는 것이 학업장애요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장학금을 받지 않으면 비싼 편이다. 장학금이 올랐으면 좋겠다.”(면담자 12). “장학금이 없으면 비싼 것 같다. 좋은 수업은 괜찮지만 수업에 따라 수업료가 비싸게 느껴진다.”(면담자 24). “장학금 제공이 많이 도움이 된다.”(면담자 13) “등록금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일정수준 차감할 수 있다.”(면담자 16). “장학금을 받으면 보완이 된다.”(면담자 17). “저는 국가장학금과 장애 2급의 혜택으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면담자 20). 면담결과, 전체적으로 우리 경우에는 성인학습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도탈락 요인의 하나로 재정적 요인을 거론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면담자 2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혼자들인 경우 성인학습자들이 이미 자녀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2차적인 경력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2.2 학습시간부족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은 공통적으로 시간부족을 호소하고 있어서 학업지속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총 24명의 면접자중에서 22명은 압도적으로 학습시간 부족을 토로하고 있었다. 특히 직장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에는 학습시간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직장 때문에 수업을 한꺼번에 듣기도 하고, 졸면서 볼 때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1년 동안 힘들었다.”(면담자 1).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므로 직장맘으로 아이까지 돌보면, 학업은 밤10시부터 시작해야 한다. 수업 듣기는 빠듯하고 과제가 있을 때에는 더욱 과부하가 걸립니다.”(면담자 4).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에겐 이수학점이 너무 많다. 강의만 듣고 별도의 공부시간은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면담자 10).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힘듭니다. 주 49시간 근무 + 개인운동 2시간 + 반려동물 케어 + 수업 듣고 공부하기 = 바쁩니다.”(면담자 11). “직장 때문에 특히 시험기간에는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면담자 15).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를 하다 보면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공부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렵습니다.”(면담자 23). 이러한 면담결과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학업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Bean & Metzner [49]의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학업지속에 지장을 주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시간 부족은 학생의 학업소진(burnout)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면담결과도 보인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녀도 공부할 시간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와 피곤 때문에 학업에 필요한 집중력과 의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60-90분의 강의시간이 매우 부담으로 다가오며, 오히려 손 놓아버리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면담자 22)는 응답도 나타난다. 더구나 학습시간으로 말미암아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하락한다는 면담결과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면 다른 활동을 같이 할 수 없었다. 12학점 정도는 여유 있었지만 18학점은 많이 힘들었다. 직업적으로 내가 발전하기 위하여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관심이 있는데, 학업을 하다 보니, 직장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다.”(면담자 16)는 응답은 학습에 따른 부담감이 오히려 직장생활 만족도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습시간부족은 학생의 학업소진 변수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학습시간부족은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학습자들의 중도탈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직장생활 자체에서 경험하는 압박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시간부족은 결국 사이버대학을 그만둘 가능성을 크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시간 부족을 덜어줄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2.3 디지털리터러시

사이버대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육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지털리터러시 여부는 학습지속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영국의 온라인 학부과정에 등록된 20여명의 학생을 면담한 Packham et. al [50]의 연구에 의하면 원격교육시스템 활용 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이 중도포기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부천 외 2인 [51]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성인학습자들은 디지털리터러시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컴퓨터 사용 년 수가 길수록 컴퓨터 사용연수가 짧은 사람에 비하여 e-러닝 리터러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24명의 면담자 중 약 3분의 1인 8명이 원격교육 수강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명확하게 원격수업을 따라가기 충분하다고 응답한 면접자는 전체 24명 중 8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적어도 면담자 24명 중 3분의 2는 원격수업을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이 파악된다. 면담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결과 여러 명의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어플 하나 다운받기 쉽지 않은 나이가기는 하지만 설 명서대로 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고, 딸내미한테 부탁했습니다.”(면담자 2). “처음 입학했던 한 학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면담자 7). “화상강의시스템은 초보자는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면담자 12).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령에 따른 문제일 뿐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면담자 20).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했습니다.”(면담자 22). “화상강의 및 화상 스터디 기능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어려움이 많이 느껴졌으나 문제발생시 help desk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주어서 어렵다거나 힘들다는 느낌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면담자 6). “어렵지만 학교의 도움과 동기 선배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서류 작성 등 스마트 기기 활용능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면담자 13).

이러한 면담결과를 볼 때, 특히 연령이 50대 이후 성인학습자들의 경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가 심각함

을 알 수 있다. 향후 초 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볼 때, 현재 노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성인들을 모두 노인으로 보아서는 안 될 지도 모른다. 100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노인의 정의도 달라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70대 중반에서부터 80세부터 성인을 노인으로 분류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50세에서 65세까지는 적극적으로 2차 학습을 해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들의 학업 장애요인인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를 위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경우에는 사이버대학 입학할 때, 등록 후 첫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온라인강좌에 대한 사전 대비 특강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학업장애요인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2.4 고립감

고립감은 최근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학업지속 장애요인 중의 하나의 변인이다. 사이버대학생들이 중도 탈락률이 높고, 대학에 등록하였으나, 더 이상 학습을 지속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인지된 고립감을 들 수 있다. 상당수 면담자들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동급생들을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이버대학이지만 학우 간에 교류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면담자 3). “외롭습니다. 같은 지역의 동급생을 만나면 더 학교생활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공부에 대한 고민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면담자 21). “내 경우는 토요일마다 오프라인 수업에 나오니까 고립감은 별로 못 느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방학 때는 단절되는 느낌이다.”(면담자 10). “동아리 활동이나 콜로키움이 아니면 동급생들을 쉽게 만나기 어렵습니다.”(면담자 12).

그러나 상당수 면담자들은 오프라인특강 때문에 고립감이 적었다고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말에 꾸준히 나오는 편이라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만 오프라인 수업이 있습니다.”(면담자 2). “거의 모든 주말마다 학교에 오기 때문에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면담자 11). “토요특강이나 콜로키움 그리고 개인적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이다. 그 외

개강파티 워크숍 등 학교행사를 통해 교류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토요일 오프라인 특강은 좋다.”(면담자 13). “토요일마다 특강참여로 동기도 만나고 교수님과 정보교류도 하고 외롭지 않다.”(면담자 14). 한편 동아리 활동도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첫 학기는 고립감을 느꼈다. 동아리 활동을 안 하던 때이다. 그러나 학부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고립감이 사라졌다.”(면담자 9). “서울거주하고 있어서 동급생들은 만나기 쉽다. 토요일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서 교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학우들은 어려울 것이다.”(면담자 17).

요약하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상당수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특징 중의 한 가지는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 연령대가 젊은 20대부터 40대에서 60대 까지 연령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동양사회는 홉스테드(Geer Hofstede)의 문화적 차원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권력격차가 큰 사회이다 [52]. 다른 말로 하면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회이다. 그리고 위계질서는 주로 연령으로 구분된다. 유교사상에도 長幼有序라는 원칙이 있다. 그런데 비전통적 학습자인 성인학습자가 전통적 학습자와 같이 학습하게 되면, 정체성 혼란이 오고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편 온라인 강의에서 오는 고립감도 존재한다. 면담결과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은 주말에 개설되어 있는 오프라인 특강에서 상당히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특강의 질과 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동아리 활동이 고립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4.2.5 상호작용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e-러닝 교육의 단점으로 상호작용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호작용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담자들에게 질문하였다. 상당수 학생들이 상호작용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을 직접 뵙지 못해 아쉽다.”(면담자 1). “수업내용을 모를 때 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면담자 4). “오프라

인 수업 때는 질문도 바로 할 수 있어서 강의내용을 이해했다는 느낌이 더 크고, 수강하는 과목의 지식을 쌓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온라인 강의는 그렇지가 않아서 2퍼센트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교수와 학기를 맡은 교수님이 서로 다를 경우 이질감이 느껴져서, 수강 내용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면담자 6). “어차피 사이버대학이라서 학교 가는 것에는 미련이 없지만 강의를 직접 보지 못해 교수님과 직접 소통이 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답답했습니다.”(면담자 22).

특히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서 외로움을 느꼈다는 면담자의 보고가 세 건 있어서 교수와의 상호작용 부재는 고립감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수님을 직접 뵙지 못해 아쉽다. 외로움이 약간 있었고 뒤풀이사진이 올라오는데 참석 못해서 아쉽다.”(면담자 1). “30대인데 사이버대학에서 고립감을 느낍니다. 수업내용을 모를 때 교수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면담자 4), “학교활동을 많이 해서 외롭지 않았지만 가끔 교수님 얼굴이 별로 나오지 않는 수업은 재미없고 외로움을 느꼈다. 오프라인 특강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면담자 24). 이러한 응답들은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이 교수와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을 때 고립감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부재는 온라인 교육의 기술적 한계점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실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는 서로 눈을 맞추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눈을 맞추며 상호작용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본질적인 온라인 교육의 한계점은 기술혁신을 통하여 현재보다 개선된 의사소통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화상회의 기술이 진화되어, 사이버대학 학생들이 마치 오프라인 교실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서로 질문도 할 수 있고, 동시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 뿐 만 아니라, 학습자와 학습자간에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상호작용 부재라는 측면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4.2.6 가족의 지원

가족의 지원에 대하여 대부분의 면담자들은 가족이 사이버대학 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사이버대학에 재학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응답도 6명이 나왔다.

“지금 들이는 노력을 할 바에는 사이버대학이 아닌 오프라인대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다.”(면담자 4). “가족들은 왜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식구들은 의아해 하고 있고 더구나 특수 외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니 생똥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면담자 5). “부모님은 사이버대학의 전문성이 덜하다는 인식이 있으십니다.”(면담자 6). “가족의 생각으로는 아직 사회에서 사이버대학은 입학만 하면 졸업하기 쉬운 대학이며, 학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면담자 8). “당장 생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남편이 부정적 태도를 보입니다.”(면담자 12). “가족들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의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면담자 21). 이처럼 24명의 면담자들 중에서 6명이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한 점에 비추어 보아 가족의 지원이라는 변인은 학업지속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향후 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이버대학들이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사이버대학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4.2.7 부정적 인식

일부 면접자들은 사이버대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느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사이버대학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 정규대학과 같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4년제 대학졸업장 취득이 가능해서 대졸이라고 표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면담자 2) “사이버대학에 대한 사회인식이 미흡하므로 학교 입장에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한국사회는 학벌이라는 큰 걸림돌이 있어서 어렵습니다.”(면담자 4). “현재 많은 수의 사이버대학이 존재하며 우리 대학은 다른 사이버대학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에서는 사이버대학에 대해 일반대학보다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면담자 8).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면담자 23). “사이버대를 통한 자격증 취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면담자 24). 이처럼 여러 명의 면담자들은 사이버대학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사이

버대학 재학생들은 학업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사이버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 결론 및 함의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수명연장에 따른 복지문제가 현안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 혁신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대학 1차 교육에서 획득한 최초의 전문지식만 가지고는 수명이 연장된 중년 이후의 삶을 감당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이버대학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차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 예측한 대로 성인학습자들은 경제적 부담, 학습시간 부족, 디지털리터러시의 문제, 고립감, 상호작용 미비 등이 학업지속을 방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 결과, 장학금제도는 상당히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미비에 대하여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미비는 성인학습자의 고립감을 초래하고 있어서 학습장애요인 중의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사이버공간 상에서 상호작용 미비를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비전통학습자인 성인학습자가 경험하는 사이버대학내의 고립감은 동아리 활동과 오프라인 특강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문제는 입학 직전에 특별 선수과목을 이수시킴으로써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사례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학습시간 부족은 대다수의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 면담자들이 학습시간 부족이 학업소진과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시간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점들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시점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성인학습자의 학업시간이 부족한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해결이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는 학습시간이 모자라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업을 보조해주는 튜터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질적인 연구기법을 활용하면서도, 24명의 면담자에 대한 양적인 연구기법을 병행함으로써, 질적 연구기법과 양적 연구기법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 점이다. 둘째, 온라인 학습자의 중도탈락 변인에 대한 외국문헌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학습시간 부족 변인과 경제적 부담 변인이 중요한 학업지속 장애요인으로 확인한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의 중도탈락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에 새로운 변인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면담자들이 주로 여성이어서, 남성 면담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이다. 향후 남녀 양성을 모두 고려한 연구를 추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사례분석에서 밝혀진 변인들에 대하여 가설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설에 바탕을 둔 양적 연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질적으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면담자들은 서울 소재 H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에 국한되어있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이버대학 학생들에 대한 면담조사도 시행되어서 연구결과와 일반적 특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Naver News*. (2018). 2018.9.14.
- [2] Y. S. Jung & J. H. Sung. (2010). Adult Learners' Performance for Online Interaction in Distance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6(1), 113-135.
- [3] S. H. Lee & H. J. Lee. (2008). Professor's Perception and Needs on Blended e-Learning, *Proceedings of E-Learning, Las Vegas*, 984-993.
- [4] Y. J. Gwak & J. H. Lee. (2018). The Effect of Educational Participatory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n Major Satisfaction among Cybe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5), 285-295.
- [5] Y. Levy. (2007). Comparing Dropouts and Persistence in e-Learning Courses, *Computers and Education*, 48, 185-204.
- [6] A. Parker. (1999). A Study of Variables That Predict Dropouts from Distance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2), 1-12.
- [7] J. Dutton, M. Dutton & J. Perry. (1999). Do Online Students Perform as well as Lecture Student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90(1), 131-139.
- [8] P. A. Willging & S. D. Johnson. (2009). Factors that Influence Students' Decision to Dropout of Online Courses,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 13(3), 115-127.
- [9] J. H. Park & H. J. Choi. (2007). Factors Related to Dropout of Adult Learners in Online Program,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3(3), 29-53.
- [10] V. Tinto.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 Research*, 45, 89-125.
- [11] S. P. Jang & Y. M. Lee. (2006). An Analysis on Adult Learners' Participation and Needs of E-Learning Based Lifelong Learning Program,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 47-65.
- [12] Y. R. Paik & B. N. Song. (2015). The Conflict Experiences of Adult Learners in College Life,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16(2), 85-95.
- [13] M. J. Shim. (2016). The Case Study on Cyber University Adult Learners' Learning Capability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rogram for Strengthening, *Journal of Educational Consulting*, 4(1), 1-13.
- [14] J. Y. Lee & E. J. Lee. (2010). Influence Analysis of System Information and Service Qualities on Learner Satisfaction in University e-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1(3), 119-147.
- [15] J. M. Lee. (2011). What Drives a Successful e-Learning : Focusing on the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e-Learning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4(4), 2245-2257.
- [16] B. K. Choi & J. S. Jun. (2011). 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mong Social Presence Course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Learners at a Cyber Universit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2(4), 316-334.
- [17] D. G. Youn. (2012). A Study of Affecting Factors to Learner's Satisfaction in Business Cyber Education, *The e-Business Studies*, 13(2), 49-69.
- [18] J. H. Kwon. (2009). A Study on Adult Learner's Non-persistence in Distance Higher 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Adult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5(3), 159-188.
- [19] S. Choi & G. J. Kim. (2008). A Study on the Cause of Dropout of the Students Based on Web, *The e-Business Studies*, 9(2), 225-245.

- [20] H. J. Kwon. (2010). The Effects of Personal, Institutional Social Values on Determinants of the Cyber University Students Dropout Inten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3), 404-412.
- [21] S. Y. Park. (2014). An Analysis of Adult's Lifelong Education in University, *Korea Policy Research*, 14(2), 45-61.
- [22] U. S. Choi. (2006). An Analytical Study on Conditions and Nature of Adult Learners' Participation for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2(1), 1-35.
- [23] S. S. Park & S. W. Kim. (2011). Analysis of Factors for Adult Female Learners' Dropout in e-Learning, *Proceedings of Korean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9(1), 149-153.
- [24] E. H. Kim, J. M. Kim & U. S. Song. (2010). A Study on Actual State and Improvement Plans of Cyber Home Learning System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nverge*, 8(2), 159-169.
- [25] S. Carr. (2000). As Distance Education Comes of Age, the Challenge is Keeping the Students,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46(23), A39-A41.
- [26] J. Bocchi, J. K. Eastman & C. O. Swift. (2004). Retaining the Online Learner: Profile of Students in an Online MBA Program and Implication for Teaching Them,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79(4), 245-253.
- [27] C. K. Morgan & M. Tam. (1999). Unravelling the Complexities of Distance Education Student Attrition, *Distance Education*, 20(1), 96-108.
- [28] H. A. Kim & H. J. Kim. (2011). The Study on Factors Predicting Adult Learner Academic Achievement and Persistence in Distance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7(3), 51-78.
- [29] I. K. Noh & S. H. Lee. (2016). An Analysis of Employed Learners' Learning Behaviors and the Factors Affecting Learning Achievement: Using Learning Analysi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2(4), 53-78.
- [30] J. S. Yang. (2012). A Survey of Actual Condition of e-Learning in Universities,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2(4), 289-304.
- [31] K. A. Son & Y. H. Woo. (2010). The Development Strategy of LMS to Improv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n Distance Education of Kore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6(2), 127-149.
- [32] A. P. Rovai. (2003). In Search of Higher Persistence Rates in Distance Education Online Programmes,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6, 1-16.
- [33] J. Y. Joo, A. K. Chung, N. Y. Yoo & S. H. Yi. (2012).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Isolation, Organizational Support, Satisfaction and Consistency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49(10), 240-250.
- [34] Rovai. (2002). Sense of Community, Perceived Cognitive Learning, and Persistence in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5, 319-332.
- [35] J. Y. Joo, N. Y. Yoo & H. N. Seol. (2012). Multi-group Analysis of Employment Status in Isolation, Interaction, Content Satisfaction, Achievement and Persistence in Cyber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5), 525-540.
- [36] Y. J. John.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ecedent of E-Learning Use of the Internet among S. Korea, Vietnam, and Singapo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1-8.
- [37] P. Dupin-Bryant. (2004). Pre-entry Variables Related to Retention in Online Distance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18(4), 199-206.
- [38] G. S. Choi. (2010).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Intention to Decide Dropout, *Korea Business Review*, 3(1), 95-118.
- [39] J. H. Park & H. J. Choi. (2009). Factors Influencing Adult Learners' Decisions to Drop Out or Persist in Online Learning,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12(4), 207-217.
- [40] B. S. Choi. (2006). Reconsidering Policy Case Studies: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 against Case Studies,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5(1), 171-198.
- [41] G. S. Yoon. (2008). Case Study: From Analysis To Writing,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17(4), 63-87.
- [42] W. S. Shim. (2010). A Methodological Discourse on Case Studies in Tourism Research: A Meta Analysis on the Journal of Tourism Science, *Journal of Tourism Science*, 34(9), 73-95.
- [43] R. K. Yin.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 Sage.
- [44] Y. S. Kim. (2012). Review and Critique of Adult Learners' Motivation Research, *Andragogy Today*, 15(1), 31-62.
- [45] G. King, R. Keohane & S. Verba. (1995). The Importance of Research Design in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475-481.
- [46] J. W. Creswell. (201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4th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 [47] T. D. Ahn. (2017). Moderating Effect of Learning Styles on the Relationship Quality and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2), 25-33.
- [48] S. C. Sutton & A. Nora. (2008). An Exploration of College Persistence for Students Enrolled in Web-enhanced Courses: A Multi variate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10(1), 21-37.
- [49] J. P. Bean & J. P. Metzner. (1995). A Conceptual Model of Nontraditional Undergraduate Student Attri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5(4), 485-540.
- [50] G. Packham, G. Jones, C. Miller & B. Thomas. (2004). E-Learning and Retention: Key Factors Influencing Student Withdrawal, *Education & Training*, 46(6/7), 335-342.
- [51] B. C. Baek, S. Y. Park & S. B. Cha. (2014). Agricultural High School Teachers' e-Learning Literacy and Intention to Use e-Learning and Relationship with Their e-Learning Efficiency, Social Organizational Support and Hindrance Factor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6(3), 29-51.
- [52] G. Hofstede. (1984).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Sage Publications.

정 용 균(Chung, Yong Kyun) [정회원]



- 1982년 2월 :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석사
- 1992년 9월 : 미국 오리건주립대 경제학박사
- 2003년 3월 ~ : 국립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전자무역, 국제상사중재, 평생교육
· E-Mail : ykchung@kangwon.ac.kr

김 중 렬(Kim, Joong Ryul) [정회원]



- 1987년 12월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경제학박사)
- 1988년 3월 ~ 현재 : 한국의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 관심분야 : 노동경제정책, 국제무역 및 금융, 온라인 학습
· E-Mail : jrkim@hufs.ac.kr